

히에이산·비와코

산과 물 그리고 빛의 회랑





일본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는 호수 비와코, 그곳은 생명을 기르고, 은혜로움이 가득한 어머니 호수.

비와고는 교도에서 동쪽으로 10km 정도에 위치하는 일본 최대의 면적과 저수량을 자랑하는 호수입니다. 총면적은 약 670km², 둘레 약 235km에 달하고, 세계에서 꼽히는 고대 호수이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풍부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약 1000종이 넘는 동식물이 서식하며, 그중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비와고만의 고유종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 세의 귀중한 도래지이기도 한 비와코는 1993년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자연의 성역인 비와고는 한편으로는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면면히 생활을 영위해 온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호수입니다. 어류, 조류, 식물, 사람, 이처럼 비와고는 실로 많은 생물의 생명을 길러온 '어머니 호수'입니다.

비와고에서 바라보는 히에이산은 웅장하고 수려한 모습으로 매료하며, 히에이산에서 바라보는 비와고는 거울 같은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히에이산에 가는 방법은 교토 쪽에서는 아세히에이잔구치에서 에이잔 케이블카로프웨이로 갈 수 있고, 시가 쪽에서는 사카모토 케이블 외에 드라이브웨이로도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모두 차창에서 바라보는 각각의 고유한 경치는 특별한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먼 옛날부터 히에이산에서 비와코까지, 또는 비와코에서 히에이산까지를 둘러보는 남방여행은 웅대한 '산'의 자연과 풍광명미한 경치, 비와코의 은혜 넘치는 '물', 불교의 성지에 물을 밟히는 심원한 '빛', 그 모두를 역동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여행코스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야기로 시공을 초월해서 불교의 성지와 어머니 호수를 만나보세요. 시간과 공간의 낭민이 숨 쉬는 히에이산과 비와고를 탐방하는 순례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불교의 근원이며, 어머니 산으로 칭송되는 히에이산

히에이산은 시가현과 교토부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5개의 봉우리를 가진 아름다운 신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줄기는 남북으로 약 16km, 최고봉은 해발 848m의 오오하에이입니다. 오오하에이를 중심으로 약 100km 빙위에 사원의 경내가 펼쳐져 산 전체가 엔라쿠지 사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장엄하고 웅대한 명산입니다.

영산의 근본이 되는 엔라쿠지는 788년 천태종의 개조 사이초오(덴교오다이시)가 히에이산 속에 이치조오시간인(一乘止觀院, 후의 콘본주우도오(根本中堂))를 창건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그 후 엔년, 연천, 료오겐 등의 고승에 의해 토오도오(東塔), 사이토오(西塔), 요카와(横川)라는 3개 구역에 많은 사람이 세워지면서 번창했습니다. 전성기에는 3000

명이 넘는 승려가 수행하고 있었으며, 호넨, 요사이, 도겐, 신린, 니치렌 등 각 종파의 개조 고승을 다수 배출한 일본 불교의 근원이 되는 산입니다. 시가집 배인일수(百人一首)로 유명한 지엔(慈円)도 히에이산 대래 "세상에 산이라고 불리워지는 산은 많지만, 산이라고 하면 히에이산만을 말한다"라며, 히에이산을 일본 제일의 산으로 칭송하여 시를 읊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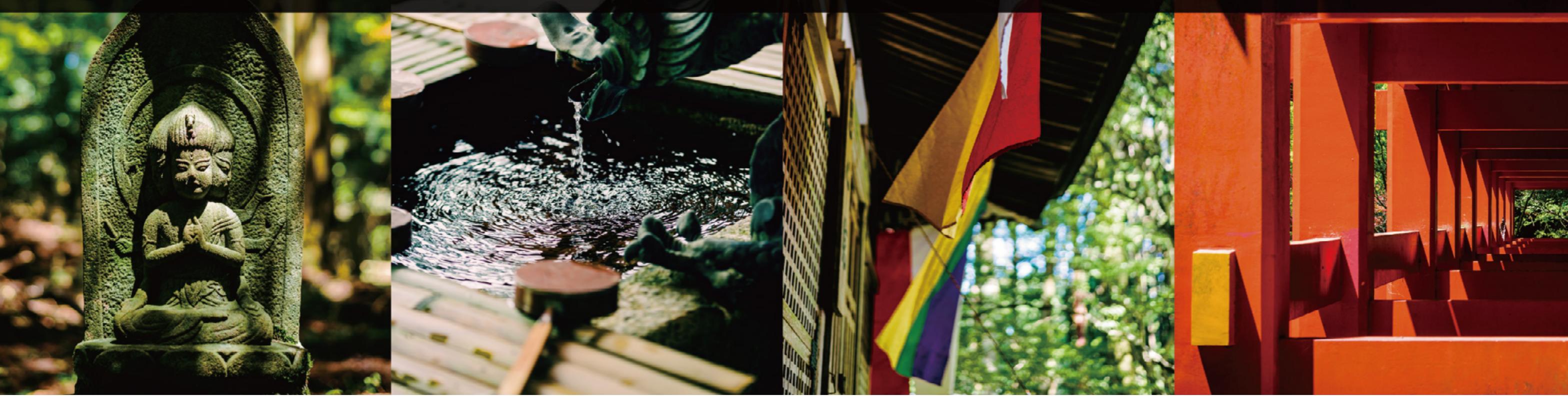
히에이산의 또 다른 매력은 풍요로운 자연환경입니다. 오랫동안 영산으로서 성역이었기 때문에 시금도 청정한 자연이 남아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 제일의 호수 비와고를 내려다볼 수 있고, 서쪽으로는 옛 수도 교토의 거리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경승지입니다. 봄에는 야생 조류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에 마음이

끌리고, 신록이 눈부신 여름에는 평지보다 낮은 시원하고 상쾌한 기후 속에서 힐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전체가 물에 물드는 단풍의 가을, 순백의 눈에 훤싸이는 정적의 겨울 등, 사계절 철철이 변하는 경관이 마음을 설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지켜온 12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세계에 높이 평가받아 199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정비된 경내에서 모든 불당의 배관은 물론, 주변의 사연산책과 사적탐방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World Cultural
Heritage Site
on December 17, 1994



히에이잔연력사

히에이잔연력사 토오토오 지구

'토오토오(東塔)'는 덴교오다이시 사이초오가 엔라쿠지 절을 처음으로 개설한 엔라쿠지의 발상지, 총 본당에 해당하는 콘본추우도오(根本中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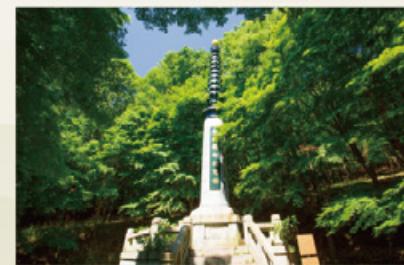
가 있고, 히에이산 내에 흘러져 있는 150개의 불당, 3단

16계곡의 중심이 되는 구역입니다. 콘본추우도오를 비롯하여 각 종파의 개조를 모시는 대불당과 아미타 불당 등, 중요한 불당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엔라쿠지 버스센터가 있어, 히에이산의 꼭대기, 사이토오(西塔), 요가와(口川) 지역으로 가는 셔틀버스나 교도 시내로 향하는 노선버스를 탈 수 있으며, 또 사카모토 케이블을 이용하여 몬젠마치 사카모토에 내립 수도 있습니다. 경내에는 슈쿠보와 엔라쿠지 회관이 있어 식사와 숙박, 수행체험도 가능합니다. (※ 예약 필수)



야세

히에이산의 산기슭에 펼쳐진 야세는 '교도의 안방'이라고도 불리는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인 조용한 지역입니다. 봄~여름은 너무도 싱그러운 신록에 마음마저 깨끗해지고, 가을에는 올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에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한가로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슬로우 저여입니다.



1 야세단풍오솔길

케이블 아래쪽 옆으로 나 있는 산책로입니다. '단풍 오솔길'이라 하며, 그 이름대로 단풍이 물드는 가을철에는 멋진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여름에는 반대로 푸른 단풍이 눈부신 싱그러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2 다카노가와 강

야세 지역에서는 야세 강이라고도 합니다. 푸르른 자연을 노래하며 강변을 산책하는 것은 마음이 힐링되는 체험입니다. 교도의 바로 근처라고는 믿을 수 없는 자연의 상여입니다.

비와코 호수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코는 망문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한 레이크 레저, 혹은 전통과 역사와 배우는 팀빙 여행, 특유의 생선요리 문화와 예술을 접하는 여행 등... 시가현 관광의 중심은 모두 비와코 호반에 모여 있습니다.



1 야나가사키호반공원

비와코 오쓰관을 중심으로 비와코 호반에 펼쳐진 녹음이 절은 공원입니다. 원내에는 장미를 미롯한 사계절의 꽃들이 알을 닦아 피어나는 영국식 정원이 있어, 호수에서 물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탁 트인 정원을 산책하는 가운데 휴식을 추천합니다.

◆ 영업시간 4~9월 9:00~18:00 / 10~11·3월 9:00~17:00
12월 11:00~16:00 / 1월~2월 휴원

2 다이코오도오 (important cultural property)



스님이 학문을 수련하는 도장으로서 발전하여 수많은 논의와 법요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본존은 대일여래상으로 그 좌우에는 히에이산에서 수행한 각 종파 계조의 목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아미타 불당

가장 중요한 히에이산의 신전. 엔라쿠지의 창시자 덴교오다이시 사이초오가 788년에 창건한 이치죠오시칸(一乘止觀院)이 그 시초이며, 그 후 몇 번이나 재해를 당하면서 새롭게 재건될 때마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도쿠가와 이에미쓰 공의 명으로 1642년에 준공된 것입니다. 긴물은 국보로, 회령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본존은 덴교오다이시가 창건 시에 직접 조각했다고 전해지는 약사여래상으로, 그 앞에 밝힌 등불은 1200년 이상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어 '불멸의 불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훗케소오지인 토토오도

1980년 아미타 불당 옆에 세진. 덴교오다이시 사이초오는 일본 전국 6곳에 보답을 건립하여 일본을 지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이도오토오(東塔)입니다. 본존은 대일여래상으로 일본의 독특한 운치를 자아내는 '스이킨쿠쓰' (물방울로 거문고 소리를 내게 하는 장치)가 상층부에는 불사리와 법화경이 있어, 아름다운 울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히에이잔연력사 사이토오 지구

본당에 해당하는 사카도오(口堂)를 중심으로 하는 구역입니다. 토토오(東塔)에서 북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있으며, 제2세 전대좌파 갓코오대사 엔조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수행 불당인 나나이도오와 덴교오다이시 사이초오 스님의 위폐를 모셔둔 죠오도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연수도장인 고지린(居士林)도 있어 수행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약 필수)



1 나나이도오

훗케도오(法華堂)와 죠오교도도(常行堂)라는 같은 형태를 한 2개의 불당이 하나의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설의 슬려 'unkeru'가 연결복도에 어깨를 들이밀어 떴(나나이)다는 전설에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훗케도오는 보현보살을, 왼쪽에 있는 죠오교도는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샤카도오

사이토오(西塔)의 본당으로 덴교오다이시가 직접 만든 본존 석가(샤카)여래상에서 유래한 이 이름으로 일컬겠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히에이산을 도별한 후, 1596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쓰의 미이데라 절에서 이축한 금당으로 엔라쿠지에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오쓰항

비와코 크루즈의 거점으로 유럽 선 미시간 등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항구입니다. 비와코에 있는 3개의 섬으로 신의 섬이라고 불리는 시쿠부시마, 섬 전체가 사원의 경내인 나케시마, 어업이 활발한 오끼시마까지 유람선과 고속정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크루즈 코스

비와코의 옹대한 경치와 식사를 즐기는 90분 코스

미시간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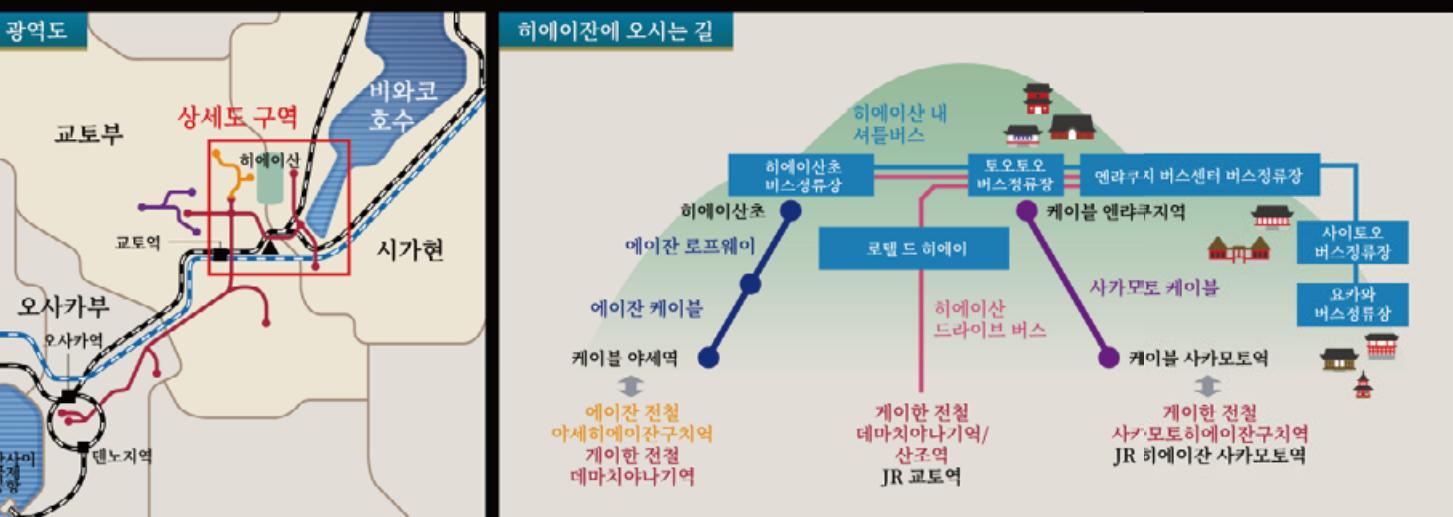
비와코를 부담 없이 즐기는 60분 코스
미시간 60



3 비와코오쓰관

1934년 시가현 최초의 국제관광호텔로 건축된 구 비와코 호텔의 본관을 활용한 문화시설입니다. '호수 고장과 영민관'이라고도 불리며, 일본 국내외의 많은 인사들을 대표시킨 우아한 건물 내에는 레스토랑, 카페, 갤러리,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영국식 정원도 인기가 높습니다.

히에이잔 산·비와코 호수 상세도



이곳에 게재된 내용은 2024년 3월 현재의 정보입니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히에이산·비와코<산과 물 그리고 빛의 히랑>
<https://www.hieizan.gr.jp/>



히에이산·비와코 DMO
히에이산·비와코 DMG
(一社)比叡山・琵琶湖DMO